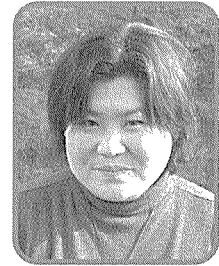


## 강진군립도서관

### ‘도서관에서 작가를

### 만나다’ 행사에 다녀와서



우지영\*

우리가 강진군립도서관을 찾은 것은 하늘도 바다도 청갯빛으로 물들어 가는 초가을 무렵이었다. 도서관은 영랑 김윤식의 생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옛날 같으면 아름답디 정자나무가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을 법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키 큰 나무로 둘러싸인 붉은 벽돌 건물은 지금도 그 옛날 정자나무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듯 했다. 누구든 부담없이 그 그늘에 들어와 쉬어 갈 수 있는…….

도서관 3층에 마련된 행사장으로 올라가자 아이들이 재재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행사장 안은 일찍부터 자리를 차고앉은 엄마들과 아이들로 발 딛을 틈조차 없었다. 초등학교 교실만한 강당에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콩나물시루가 따로 없다.

유애로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가자 아이들의 숫된 눈망울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가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잔뜩 기대하는 눈이었다. 스크린 뒤로 기어 들어가 부스럭거리는 못 말리는 꾸러기들도 없진 않았지만 거기에 굴할 선생님이 아니다. 여러 해에 걸쳐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이끌어왔던 선생님은 그런 꾸러기들까지도 재치 있는 말솜씨로 가볍게 휘어잡아 버렸다.

아이들은 입까지 헤 벌린 채 선생님의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 들었다.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처음 유애로 선생님의 그림책을 만난 아이들도 있었지만 엄마와 함께, 또 혼자서 몇 번이고 보았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생전 처음 보는 그림책인 것처럼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면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무언가 더 각별한 맛이 있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이 이날 행사를 통해 도서관 측에서 주제로 내세운 ‘그림 책 속 숨은 이야기’를 찾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애로라는 작가를 직접 만나 봄으로써 그의 작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작가의 더 많은 작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행사가 끝나고 유애로 선생님이 아이들이 가져온 그림책에 사인을 해 주는 동안, 우리는 관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립도서관은 군 단

\* 보림출판사 편집부, chichinaco@borimplc.co.kr



위 도서관으로는 드물게 1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시설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종합자료실에서 디지털자료실, 향토자료실, 시청각실, 아동열람실, 일반열람실, 행사장으로 썼던 문화교실까지 모두 11개실 626석을 갖추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동열람실이었다. 가정집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아동열람실은 아이들이 제 집처럼 편하게 뒹굴며 책과 놀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고, 신간 도서도

제법 잘 갖춰 놓은 편이었다. 구간 도서 가운데 오래전에 출간된 조악한 전집류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게 흠이라면 흠일까.

우리가 찬사를 늘어놓자 관장님은 '여기는 도서관이 아니라 놀이터'라며 불평 아닌 불평을 하셨다. 아이들이 학교만 마치면 도서관에 와서 노는 통에 "우리 아무개 거기 안 왔소?" 하는 엄마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귀에는 그 불평이 자랑처럼 들렸다. '놀이터 삼아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 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어린이 도서관이 아닌가 싶어서였다. 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쉬웠다. 단지 문턱이 낮은 도서관에 그치지 않고, 책과 더불어 잘 노는 법까지 가르쳐 주는 도서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마련한 '도서관에서 작가를 만나다' 행사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는 물론이고, 강진군립도서관 관계자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